

목양칼럼

따르릉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뜨와리 푸와^^)”
 저는 지금 그 노래의 장소인 나성(LA)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의 언니와 형부를 만나 오랜만에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언니 가족이 LA에 이민을 왔는데 그 아이가 두 살을 넘긴 즈음인 어느 주일날 아침,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 남편에게 아이와 함께 교회에 다녀오라고 하고 자신은 화장실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자궁외임신이 되었던 둘째 아이가 유산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귀로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언니는 실신한 사람처럼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아내를 보고 아이와 함께 교회를 가려던 남편이 그때 마침 울린 “따르릉” 전화 벨소리를 듣고, 나가다 말고 그 전화를 받았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알긴 알았지만, 전혀 친하지도 않았고 평생 전화도 한 통 없었던 어떤 사람이 수소문해 전화번호를 알았다며 뉴욕에서 전화를 걸어난 것입니다. 보통 통화와는 다르게 긴 통화를 마친 남편이 다시 교회를 가려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아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화장실 문을 열어 보았고, 피를 하염없이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여 급히 911을 불러 병원으로 옮겨가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전화가 없었다면, 그 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 날 통화를 짧게 했더라면, 남편과 아이는 교회로 곧바로 떠났을 것이고 언니는 홀로 죽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전화를 건 사람은 그 이전에도 전화를 건 적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화 온 적도 없고 다시 연락도 안 되었답니다. 그 날 그 시간에 “따르릉” 하고 전화를 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따르릉”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차/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팽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명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총회교육부 (646)789-1118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직원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운 이송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더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4월 22일
 제 44-16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송요한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1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이무근 장로 3부 / 정길표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3:1-21 사도행전 7:54-60	사회자
찬양 CHOIR	주 찬양해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1부/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3부/ 스테반의 순교자 신앙	김재형 목사 송요한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38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살아계신 주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김수산 장로 4부 / 차상남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338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히브리서 4:14-16 4부/ 데살로니가전서 4:9-12	사회자
찬양 CHOIR	영원히 찬양드리세 사랑하는 자들이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하나님의 상처 21세기 크리스천: 일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하나님의 은혜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수요 기도 예배		
성경 암송 대회		
오후 8:00 (4/25/18)	사회: 흥한나 권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199	다같이
기도	정성호 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15:7-10	사회자
말씀	오인수 목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암송대회	영어 참가자 유아, 유치, 유아부 중국어 참가자 한국어 참가자	
광고 및 시상	사회자	
찬송	천성 가는 길	다같이
축도	오인수 목사	

새가족 환영회
제 6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 암송 대회
4/25(수) 오후 8:00

모세/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5/2(수) 오후 8:00

2018 전교인 여름 수련회
7/2(월) -7/4(수)

교회소식

4월 전도의 달 - 와서 도우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4/25(수) 성경 암송 대회 / 선교 위원회 5/2(수) 모세 /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5/6(주) 어린이 주일 5/9(수) 아론 /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 5/11(금) 구역 예배
 5/13(주) 어버이 주일 5/14(월) 효도 관광 5/16(수) 특별활동위원회 헌신 예배

알림

- 퀵장 바이블 칼리지(QBC) 안내** 1) 시간: 매 주일 오후 2:15-3:15
 2) 장소- 1반: 70대 이상 선교회-친교실, 2반: 60대 선교회-고등부실, 3반: 50대 선교회-유년부실, 4반: 40대 선교회-중등부실, 5반: 청장년부-유아부실.
- 교사 강습회 및 기도회 안내** 2018년도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3:30에 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의 모든 교사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제공
- 성경 암송 대회**가 4/25(수)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 제 4회 Us Open 퀵즈장로교회 춘계 친선 골프대회 안내**
 (1) 일시: 4/28(토) 오전 10시 (2) 장소: Middle Island Country Club (LIE exit 66)
 (3) Fee는 \$90(점심, 저녁포함) (4) 교회에서 오전 7:30 출발 (5) 문의: 윤석현 집사, 박정봉 집사
- 4/28(토)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할렐루야 찬양대 (다음주: 50대 선교회)
- 가족기념 장학기금** 최원일 장로, 이정혜 권사, 이산아 청년

새가족

권진우 (바울 2F15)

담임 목사님 동정

휴식과 연구차 출타(4/19-27)

교우소식

- 개업** 김종향 집사 (3FM1) 가정에서 페리카나 치킨을 개업하였습니다. 주소: 941 Manhattan Ave, Brooklyn
- 개업** 황 걸 교우 (주려영 2F13) 가정에서 '수' 미용실을 개업하였습니다.
주소: 35-20 Union st, Flushing 전화: (917)780-5759
- 개업** 박성학 교우 (석옥단 2F16) 가정에서 "Smile Style" 옷가게를 개업하였습니다.
주소: 136-51 37 Ave, Flushing 전화: (917)-780-5759
- 병환** 함태현 집사 (함원숙 권사 1BMT)께서 노스쇼어 병원에 802호실에 입원중입니다.
- 병환** 강철호 집사 (강옥순 권사 2F5)께서 St.Francis 병원에서 심장 수술후 1542호실에 입원중입니다.
- 병환** 이현우 교우 (이은주 교우 3FM2)께서 St.Francis 병원에서 심장 수술후 2509호실에 입원중입니다.
- 소천** 유인순 교우 (1BMT)께서 4/16(월) 소천 받으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자

월 / 신운영 정철호 최상호 홍정혜 최정우 조미영 주 / 김운정 권오현 권혜림 유수정 정혜경
 화 / 우순우 김정운 박경우 최상호 최정우 홍정혜 목 / 강성근 허영미 송승욱 정민영 강지영 이명옥
 수 / 강지영 이명옥 한희견 이무근 함미희 주경희 금 / 차윤일 박민아 이명옥 이정은 차진희
 토 / 이정은 차윤일 나인애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아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아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89	러시아어 예배	28	영아부	36	중등부	56
2부 예배	376	청년 선교부	79	유아부	39	고등부	52
3부 예배	293	QBC	240	유치부	37	청년 대학부	39
4부 예배	154	새벽 예배	873	중국어 교육부	23	교회 학교 예배	447
영어 예배	160	수요 기도 예배	256	유년부	91	주일 낮 장년 예배	1672
중국어 예배	293	새가족 환영회	57	초등부	74	주일 낮 총계	2119

4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송동을 장로

헌신기도	송동을 장로	차상남 장로	최원일 장로	함용식 장로
책임권사	양정자 권사	이숙녀 권사	송순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준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준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브리스가, 아글라 주일식사: 청장년부(다음주: 마리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4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문답 38 문 :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라는 재판관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377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1:1-3

야곱의 늘어나는 재산과 동시에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 됩니다. (31:1-2)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셔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31:3).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함께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기에도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시기에도 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고 그분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30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1:4-13

본문에서 야곱은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제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된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야곱의 설명이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나...” (v.13)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곱의 서원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하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으며, 야곱을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54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1:17-23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선하지 못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야곱은 자신이 모은 재산을 다 챙겨서 가족과 함께 도망치듯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머리로 살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야곱의 삶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31:21-23) 오늘 하루,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30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1:24-29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버린 야곱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라반이 분노하여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31:23) 이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렀을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31:24) 우리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온전히 은혜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379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창세기 31:27-29, 40-42

하나님께서 경솔한 야곱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라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31:42)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삭의 경외하는 이” 라고 설명하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54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창세기 32:3-8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고 사는 야곱에게 궁극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두 떼로 나누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32:8)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최선이었습니다. 자기 지혜를 치러야 하는데, 피할 수 없으니 일부를 손해 보고서라도 어떻게든 그 심판을 피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심판의 날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